



질푸른 노송 사이 눈부신 '영가백등'



개복숭아.



산철쭉.



큰줄흰나비와 말발도리꽃.



산술새.



도롱뇽.

풍수는 옛 사람들의 일상이자 풍습이며, 존재방식이었다. 우리 풍수의 비조인 도선(道詵) 국사의 자생풍수는 인간의 힘으로 자연의 부족함을 보완한다는 풍수비보(風水裨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인간이 자연생태를 복원하고 친환경 길지를 조성해간다는 점에서 풍수비보는 환경에 대한 희망학이다.

도선사 <대방중창기(大方重創記)>에 따르면, 도선 국사가 산전을 유람하던 중에 이곳에 이르러 말법시대의 불교재흥처임을 간파하고는 초막으로 창건하였다고 한다.

문헌에 보이는 북한산의 가장 오랜 이름은 '부아(負兒)'이다. 산봉우리 암봉들이 마치 불꽃처럼 생겼다고 해서 불피(火山)-불악(火岳)으로 불리다가 부아악으로 변했을 것으로 보인다. 도선사에서 쓰는 '삼각산(三角山)'이라는 이름은 조선의 개국공신인 정도전의 <약장가사>에 처음 나온다. 버스 종점에 내려 봉황각을 지나면 소귀천을 만난다. 봄 기운 중에도 물소리가 청아하다. 하폭은 3-5m, 수심은 평균 30cm 정도이지만, 곳에 따라서는 어른 키를 넘는 깊은 소와 작은 폭포들이 있다. 하상은 일반과 큰 돌이 대부분이며, 부분적으로 작은 돌과 자갈 등이 섞여 있다.

이곳엔 플라나리아, 열새우, 날도래, 강도래, 하루살이 등 1급수 지표종이 산다. 물고기는 버들치와 갈겨니가 우점하지만, 계곡 휴식객들의 영향으로 근래 들어 썩지가 나타나 희망이 되고 있다.

소귀천을 따라 옥류교에 이르면 오른쪽으로 또 다른 계곡이 내려온다. 위쪽에 개신교 기도원, 대형 식당, 도선사 등 물을 많이 쓰는 시설들이 있어서 유감스럽게도 바닥이 말라있다. 그 계곡에서 얻어 쓴 물을 되돌려주지 못하고 하수관을 통해 엉뚱한 하수처리장으로 내려 보내버리기 때문이다.

소귀천 계곡은 신갈나무를 비롯한 참나무류들이 우점 하는 가운데 다양한 나무들이 어울려 숲을 이루고 있다. 소귀천 코스에는 참나무에게 시달린 탓인지 소나무가 그리 많지 않다. 간간히 보이는 소나무도 노송층에 든다. 몇 그루 리기다 외에는 젊은 소나무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오름 들어 가끔 북한산에 멧돼지들이 나타난다. 생태피라미드에서 맨 상층에 존재하는 멧돼지가 자주 출몰한다는 것은 하부 생태가 복원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야생동물이 늘어나면서 그들을 매개체로 하는 광견병 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를 알리는 현수막이 눈에 띈다.

다시 백운교로 되돌아오면 도선사로 오르는 길이다. 오른쪽으로는 백운대로 이어지는 숲 능선이며, 왼쪽으로는 도선사 계곡이다. 때맞추어 개복숭아, 산철쭉, 바위말발도리, 산이스라지 등의 목본들이 화사하게 꽃피우고 있다. 모두가 계곡을 좋아하는 나무들이다. 산철쭉은 진달래나 철쭉보다 그늘에

견디는 힘이 강해서 주로 계곡 주변이나 음습한 곳에서 많이 보인다. 어린 가지와 꽃자루에 끈적거리는 점성이 있으며, 화관은 연자주색이나 연분홍색 깔대기 모양을 하고 있다.

도선사로 가는 길은 걷고 싶지 않은 길이다. 넓은 길에 자동차 길만 있고, 사람이 다니는 길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도심의 거리도 '걷고 싶은 길'로 바뀌는 환경시대이다. 국립공원 측과 상의하여 도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아이누길잡이가 겁도 없이 길 가운데로 날아들었다. 아이누길잡이는 사람보다 몇 발자국 앞서 날아다니며 마치 길을 안내하는 듯하다. 아이누는 여러 종류의 길잡이 가운데 가장 일찍 나타나는 종이다. 봄부터 가을에 걸쳐 계곡 가까운 곳에서 관찰된다.

큰줄흰나비가 말발도리 꽃에 앉아 꿀을 빨고 있다. 큰줄흰나비는 날개에 붉은 줄이 나 있어서 보통 흰나비와 구분된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관찰되며, 숲이 많은 양지에 살면서, 십자화과 식물의 꿀을 좋아한다. 가끔 습지에서 물을 마시기도 한다.

개복숭아꽃이 필 무렵이면 우리창나비, 왕팔랑나비, 부처사촌나비, 작은멋쟁이나비, 큰멋쟁이나비, 빨나비, 왕세줄나비, 네발나비, 뱀눈그늘나비, 대만흰나비, 큰줄흰나비 등이 보이기 시작한다.

개복숭아·산철쭉·바위말발도리 등 목본들 개화 북한산에 잦은 멧돼지 출몰... 생태복원 청신호

도선사 계곡은 오랫동안 휴식단체를 실시하여 수질도 양호하고 생태도 비교적 특실하게 보전되어 있다. 제철을 맞은 관객이 막 새순을 피우고 있다. 비교적 청정한 계곡이나 음습한 곳에 자생하는 관종은 우리나라 양치식물 중 가장 종류가 많다. 내한성이 강하고, 금관을 연상케 하는 특이한 외관을 갖고 있어서 사찰 조경에 식재하면 좋은 경관을 연출할 수 있다. 계곡 주변으로 물오리나무들이 눈에 띄어 띠다. 한때 사방용(砂防用)으로 많이 심었던 물오리나무는 신갈나무를 비롯한 참나무들의 뒷세를 견디지 못하고 계곡으로 내려와 간신히 살아가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새들은 짝짓기와 동지 만들기 바쁘다. 여름철새로는 산술새, 노랑할미새, 호랑지빠귀, 흰배지빠귀, 되지빠귀, 우리딱새, 피꼬리, 빠꾸기, 검은등빠꾸기 등이 관찰되었다. 여러 해 전 이 지역에서 천연기념물 개마딱따구리가 발견되어 매스컴에 오르내린 적이 있다.

산술새는 참새만한 크기의 나그네새이다. 가끔은 우리나라에서 동지를 틀고 번식하기 때문에 여름새



도선사 백등과 노송.

로 분류하기도 한다. 등쪽은 암녹색이고 배쪽은 회백색이며, 황백색의 뚜렷한 눈썹무늬가 있다.

도선사는 풍수의 비조로 불리는 도선 국사가 개창했지만, 도선사가 앉은 형국에 대해서는 자료들이 별로 없다. 일반인들의 눈에 대충이 들어설 자리는 좋아 보인다.

경내에 들어서기 전, 오른쪽 숲 그늘에 지장보살상이 있다. 청설모가 드나들며 신도들이 공양 올린 과자를 까먹고 있다. 과자 속에는 방부제와 색소를 비롯한 온갖 화학물이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야생동물이 먹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과자를 함부로 놓지 못하도록 절에서 계몽할 일이다.

낮에는 바위 밑이나 넘어진 고목 밑에 은신하고 있다가 밤이 되면 먹이를 찾아 활동을 한다. 수질오염에 대한 내성이 약하기 때문에 명부전 도롱뇽은 도선사의 환경을 가능하는 지표종으로 삼을 만하다.

도선사 주변에는 오랜 시간 동안 화강암 틈 사이에서 결빙이 일어나 그로 인해 다양한 모양으로 갈라진 토어(토) 바위들이 많다. 옛 사람들은 편편하게 갈라진 토어 벽면에 글씨나 그림을 남겼다. 영험하기로 소문난 도선사 마애석불도 그 중 하나이다. 자연과 문화의 절묘한 만남이다.

도선사 경내에는 명부전 앞뜰의 피나무(보리수)를 비롯하여 느티나무, 은행나무 등이 있다. 도선사 경내에는 인간의 간섭과 환경의 변화로 몇 종의 제비꽃과 벌꿀벌 말고는 야생화들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에선 적지 않은 야생화들을 만날 수 있다.

물단풍은 전 세계에 단 1종인 여려해살이 초본이다. 주로 계곡이나 냇가 바위에 붙어서 자라는데, 예전에는 어린잎과 꽃줄기를 나물로 먹기도 했다. 도선사 주변에서는 삼성각 뒤 계곡에 군락을 이루고 있다. 뿌리줄기를 잘라 물기 있는 바위에 심어두면 조경가치로도 뛰어나다.

도선사 나무다리를 건너면 용암문-만경대-백운대를 지나 다시 백운교로 하산하는 산행길이 나 있다. 군데군데 물계단이 놓여있어서 토사유출을 줄여준다. 주변 입지는 화강암을 모암으로 하여 낙엽부식층이 매우 양호한 편이다. 그래서 다양한 활엽수들이 터번을 만들고 있다.

신갈나무를 우점종으로 한 참나무류와 다양한 활엽수들이 임해를 만들고 있다. 숲의 자연천이를 위해서 서어나무를 비롯하여 당단풍, 물푸레나무, 팔배나무 등이 건강하게 자라주어야 한다. 그런데, 대기오염, 토양 산성화, 인위적 훼손 등으로 이들이 제 몫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

북한산은 서울 시민들의 마을 뒷산이다. 서울과 수도권 2000만 시민들의 허파로서 북한산은 예나 지금이나 그 의미가 하늘같다.

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temple-e@hanmail.net

장사 성공의 법구 금강삼고저

안되는 장사, 안되는 사업, 산재 사고도 예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밀교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가 보기만 해도 도망가고 화로부터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며 사업장의 성공을 위해 동서사방에서 인연의 귀인들을 불러드리는 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심사에서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 있어 사업장 문안쪽 위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보시가격: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장사와 사업 흥왕의 비방 법구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민홍식,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실, 방앗간, 공점,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사찰공양실 고급수저 공장도가 시판!

불자용 명품수저 DANI 공장도가 Set 당 1,500원씩 공급

사찰공양실 보시로 품격!! 불자가정 선물로 최고!!

국내주방용품 생산메이커인 (주)신도스텐에서 사찰 공양실과 불자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불자용 수저를 제작해 큰호응을 얻고 있다.

명품브랜드인 DANI로 국내주방용품을 석권하고 있는 신도스텐은 사찰에 갈때마다 공양실에서 나오는 수저가 일반식당에서 나오는 저품격 수저와 같아 사찰공양실이 아닌 세상식당에서 먹는것과같은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 명품DANI 불자용 수저를 제작해 공장도 가격에 공급한다고 했다. 명품수저 "다니"는 일반수저와 달리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의료가 만드는 최고급 스텐레스로 제작되었으며 수저 손잡이에는 막힘없는 불

사 성공과 불자들의 건강장수를 위해 "반장"을 넣고 공양하는 불자들의 모든 소원이 성취되게 벨스타를 넣어 고급스럽고 품격있게 제작되어 있다. 명품 "다니" 일반수저는 백화점에서 Set에 4,000원씩 판매되고 있으나 사찰과 불자님께서는 보시하는 마음으로 1,500원씩 공급하고 있어 사찰공양실과 불자가정의 뜻깊은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명품수저 DANI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20Set 선물용 30,000원, 사찰에서 사용할 수 있게 50Set 75,000원, 100Set 150,000원 등 3가지로 포장되어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문의(02)741-4477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원하는 계획이 성취되는 영험

소중한 남편과 자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법구에는 세상은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역시 연이되면 돈이 동서 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을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묘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집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다

다라니부자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돈이 들어오게 하는 비방의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고급소재에 금나노, 은나노 처리 까지만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불광사에서 지갑 사용하실 분 의 물질의 소원과 원대한 계획이 성취되게 생년월일을 알려 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립니다. 납성용 금나노 반지갑65,000원 여성용은나노장지갑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